



김명주. 흙의 긴박함

글 : 안 클레어 슈마허
번역 : 구모덕

« 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 산은 무겁다, 산은 나의 땅이다. 이 고통을 견디기에 충분한 욕망으로. »

김명주(1973년 한국 출생)는 자기 내면의 약속된 땅을 계속해 찾고 있는 노마드 아티스트이다. 서울에서 시작해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에서 도예를 배운 작가는 때로는 유럽의, 때로는 한국의 작업실에서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몽환적이고 고풍스러우며 시적인 자신만의 도예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 한 작품씩 만들 때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된다, 빛과 그림자로 빚어진 나... 나의 손은 흙을 속삭인다. » 강렬하면서도 섬세하게 흙을 다루고, 유약을 입히는 작업은 작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로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창작의 긴박함에서 이루어진다.

« 노스탈지아 »는 두 문화를 오가는 한 작가가 느끼는 양면적 감정을 보여준다. 산에서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산을 짊어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공존하는 것이다. 어디에 짐을 내려놓아야 할까? 동양 사상에서 산은 물과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생명의 액체는 뜨거운 가마에서 방울로 굳어진, 흘러내리는 유약을 통해 떠올려 볼 수 있다. 자비로운 물체세 혹은 들끓는 눈물? 작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Myung-Joo Kim
Nostalgie V, 2021
Céramique, cuisson 1250°C
68 x 37 x 30 cm
Collection Musée Ariana

Œuvre sélectionnée par le jury en vue de l'exposition « Migration(s) » au Musée Ariana
(visible jusqu'au 19 mars 2023)